주식투자 황금손 '여수고래 패밀리' 떴다

광주출신 박현상씨와 처가 식구들
증권사 각종 '수익률 대회' 휩쓸어
1,200만원 종자돈 10주만에 1억이상 수익

증권사 수익률대회를 휩쓴 '여수고래 패밀리' 맴버들이 광주의 한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상·조용삼·김정미·김성부·김미영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천만원의 자금으로 월 100%의 수익을 낼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전업투자가의 길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증권사들이 개최한 주식 수익률대회에서 3차례 우승한 것을 비롯, 8차례 입상한 '수익률 고수' 박현상(34)씨의 얘기다.

박씨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장기투자나 펀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박씨는 이달 초까지 10주 동안 CJ투자증권 주최로 열린 제 3회 왕중왕 실전대회 청군전(참가금 1천만원 이상) 리그에서 256%의 수익률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우승자는 다름아닌 박씨의 제자이자 처제인 김정미(25)씨로, 김씨는 무려 539%의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김씨는 이번 대회에서 1천200만원의 종자돈에다 상금 3천만원을 더해 10주만에 1억원 이상 불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김씨의 언니 미영(27)씨와 동생 성부(23)씨도 각종 수익률대회를 휩쓴 전업투자가들이다. 박씨와 처가 식구들은 이미 '여수고래 패밀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상태다. 처가인 여수를 증권계좌 아이디로 사용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현재 박씨와 처가 식구들, 그리고 박씨의 제자인 조용삼(27)씨 등 5명은 한팀으로 움직인다. 각자 자신의 계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지만 시황진단과 종목발굴, 전반적인 투자전략 수립 등은 박씨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팀은 박씨의 아파트에 마련된 8대의 PC와 12대의 모니터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운용자금은 박씨가 1억~2억원 정도이며 다른 팀원들은 그보다 적지만, 하루 매매회수는 1인당 5~20회로 팀원 전체의 하루 거래대금은 50억원 안팎에 달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장 마감 전까지 투자금을 전액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확신이 가는 종목을 제외하곤 주식을 다음 날까지 들고가는 경우는 드물죠."

박씨는 "손실이 났을 때 손절매를 확실히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씨가 주식과 인연을 맺은 것은 군 제대후 늦깎이 대학생이 된 1997년 바이코리아 펀드의 광풍을 경험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등록금을 주식투자로 날리면서 대학생활을 중도하차한데 이어 부친이 물려준 상가건물까지 날리는 좌절을 맛봤다.

이후 매일 고수들의 투자패턴을 뜯어보며 실패요인을 분석해온 박씨는 2004년 극적으로 재기했고, 금융학원 강의를 하면서 '여수고래 패밀리'를 결성했다.

박씨의 꿈은 한국의 워런 버핏. 박씨는 증권사들이 1억~2억원의 연봉으로 스카웃 제의를 해왔으나, 정중히 거절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 같은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구상 때문이다.

향후 시황과 관련, 박씨는 "국내 증시가 대세 상승국면에 있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버블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초까지는 조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특강

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제 26회 여성경제인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1세기는 인재경영시대 재교육이 기업경쟁력 강화"

21세기에 있어서의 주요 성장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들 분야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26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정병석(55)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인재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21세기는 인재에 의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인재경영시대"라고 정의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이 강조하는 인재교육은 ▲기술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향상훈련 및 재교육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 의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기법 숙지 ▲리더십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업은 학습조직으로 전환해 업무와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 기업내에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되 대학·전문기관 등과도 연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총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인재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인 국가로 일본과 프랑스를 사례를 들었다.

제조업은 90년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은 산업간, 산업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했고 풍부한 내수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했다. 협조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도 큰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이다.

정 총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일본의 제조업을 이끌어온 '모노츠쿠리(장인정신)'의 가치를 재발견한데 이어 이를 국가 경영브랜드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이는 프랑스 패션기업 루이비통이 생산기술자를 장인정신으로 무장하게 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일고·서울대 상대를 나온 정 총장은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지방노동청장·노동부차관을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파업

노조 전임자 축소 갈등…생산라인 가동 중단

노조 전임자 축소를 놓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고려시멘트 노조가 28일 파업에 돌입, 장성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고려시멘트는 이날 장성공장 노조원 70명이 파업에 돌입해 영업·출하라인을 제외한 생산라인이 가동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고량이 충분해 주문량 출하에는 부갈등이 불거지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장성공장에 있는 노조 본조는 현재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광양공장 지부장 등 3명으로 돼 있는 노조전임자를 2명으로 줄이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광양공장 지부장을 전임에서 제외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반면 사측과 광양공장 지부는 선출직 지부장보다는 임명직 사무국장의 전임직 제외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성공장 조합원들이 반발,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광양공장은 정상가동 중이다.

당분간 큰 이상이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하루 2천t 분량의 반제품 생산이 어렵게 돼 조업차질과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이후 9차례 교섭을 진행해온 노사 양측은 ▲재직근로자의 정년·고용보장 ▲생산장려금 지급 등 5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축소문제로 내

사측 관계자는 "전임자 축소는 노사가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노조 내부의 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파업으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정상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율 5.85%(확정금리)
법조타운 1층(법원 앞) ☎062)233-0717
여수지점 ☎061)660-0114
순천지점 ☎0611724-3399
상업저축은행

원 高로 여행업계 '호황'
항공 등 매출 크게 늘어

원화가치 상승으로 경비부담이 줄어 해외여행객과 유학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항공운송업과 여행사업의 매출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으로 전세버스업과 고속버스업의 매출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06년 기준 운수업 통계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운수업계의 매출액은 90조6천713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항공운송업의 매출은 모두 11조2천9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늘어났다. 이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해외경비 부담경감으로 해외여행객 및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금·청해진 농협, 완도·강진축협 합병
12월께 새 출범

전남농협지역본부 관내 완도 고금농협과 청해진농협, 완도축협과 강진축협이 지난 25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투표결과 고금농협과 청해진농협은 합병후 완도농협으로, 강진축협과 완도축협은 강진완도축협으로 오는 12월께 새로 출범한다.

이들 조합이 합병하게 되면 완도농협(조합장 정남선)의 경우 2006년말 기준 조합원 6천173명, 총자산 2천541억, 예수금 1천670억 규모로, 강진완도축협(조합장 이종배)은 조합원 3천398명, 총자산 1천135억, 예수금 615억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농협은 지난 2004년 말 197개에서 올 6월말 현재 160개로 줄어들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합병으로 각종 영농 편익시설과 유통시설이 적절하게 재분배되고, 자기자본 증대를 통해 농축산자금의 적기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남헌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 선임

남헌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60)이 최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제 8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남 신임회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은행 전무와 부행장, 은행장 직무대행, 우리F&I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